

女子消防官과 어머니消防隊

—그들은 어떠한 活動을 벌이고 있는가—

零下, 寒冷의 언덕에서 雪寒風暗 아래 당한 火災現場, 騒音과 을부짓음의 범벅이가 계속된다.

火災現場에 온갖 抵抗이 매우 轟動했다 해도 불이 완전히 꺼진 後에 생각하면 허전하기 그지없다. 눈물이 솟고 가슴이 쓰리고 앞 일이 캄캄하고 태산같은 근심이 온 마음을 엄습해 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試鍊을 사전에 막기 위해 행하는 것이 防火診斷이요, 또 이러한 火災의 事前 豫防活動이 우리에게 주어진 使命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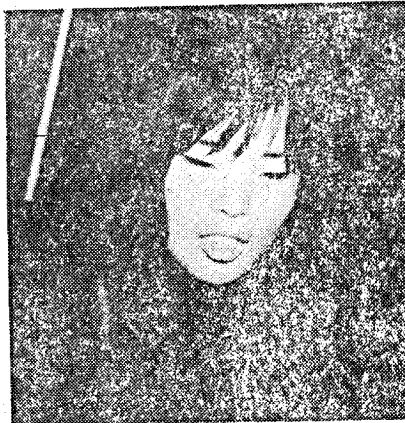
이러한 精神 아래 女子消防官이 誕生된지 만 8개월(1973年 10月 1日), 女子義勇消防隊인 어머니 消防隊가 發足된지 만 2년 8개월(1972年 11月) 이들은 女子의 몸이지만 男子 못지 않은 투철한 奉仕精神이 깃들여 있다.

이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떠한 活動을 통해 國民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가? 그 活動狀況과 알아보고 이들이 말하는 來日의 消防韓國을 들어본다.

1974年 3月 30日 下午 2時 서울시 消防本部會議室에서 서울시 새마을상록회 부회장이며 東大門區 어머니義勇消防隊長인 김승자(39)씨와 龍山消防署 防護課豫防係에서 근무하고 있는 女子消防官 김연수(23)양이 자리를 같이했다.

約 1時間餘에 걸친 이들의 對話는 “내 財産 내가 保護하고 이 財産의 保護가 곧 國家의 百年大計를 가름하는 捷徑이 된다는 點에서 온 국민은 철저히 警火思想으로 武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지나날 우리는 남의 집에 불이 나면 내 財産이 아니라라는 데서 傍觀하던 時代는 지나 갔읍니다.” 불이 난 財産이 나의 財産이 아닐지라도



김연수 소방관

이는 國家의 財産이요 國家의 財産은 곧 내가 살고 있는 祖國의 財産이라는 點에서 火魔를 追放하는데 온 國民은 渾然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 모두가 철저히 警火思想으로 武裝하여야 할 것이며 人間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불이지만 이를 취급하는데 있어 寸步도 疎忽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자동차가 지나가면 “어디서 불이 났구나!” 하는 정도의 觀心에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火災가 났을까?” 하는 觀心으로, 또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담배꽂초에 “불이

꺼졌나?”를 확인하는 마음 등이 모두에게 깃들여야 할 것이라도 말한다.

“火災의 豫防, 지금까지 알차게 다져온 우리 經濟를 火災로부터 保護하는 것도 곧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새마을 事業이 아닙니까?” 세 아들의 어머니인 김송자여사는 建設하는 것만이 새마을 事業이 아니라 이를 화재로부터 지키는 것도 새마을 사업이라고 역설한다.

그런가 하면 7名妹中 5째라는 김연수 소방관은 國家가 直面한 消防業務의 重要大性에 消防官이 된 自身을 새삼스럽게 대견스럽게 생각한다고 힘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참여한 소방업무에 조금도 懷疑를 가져 본 일이 없으며 오직 어떤 難關도 克服한다는 굳은 意志만이 깃들여 있다.

女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女子이기 때문에 기쁨도 한층 큰 이들의 활동은 연약하고 가냘픈 몸이지만 火災로부터 人命과 財産을 保護해야 한다는 使命感, 오직 奉仕와 犧牲精神만이 點綴되어 있을 뿐이다.

이들의 活動狀況은 男子들 못지 않다. 女子消防官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女子義勇消防隊의 경우도 夜間에 비상이 걸리면 20~30분만에 隊員이 集合하는 것, 또한 火災現場에서 人命救助 作業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機敏성과 敏捷性은 바라보는 國民들로부터 激勵과 讚辭가 크게 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代의 女子消防官들의 活動은 女性 特有的의 부드럽고 상냥함 뿐 아니라 세밀하고도 치밀한 빈틈없는 소방진단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羨望과 喝采를 받고 있다.

「많은 國民들로부터의 寵愛」, 바로 이것 때문

에 女子消防官의 어려움도 있고 업무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男子못지 않은 철저한 訓練 期間을 거쳐 이제 一線勤務를 하고 있는 이들 消防官들은 처음에는 어떨떨하여 일손이 잡히지 않았으나 이제는 조금씩 자신이 붙어 간다는 김양의 말대로 국민들로 부터의 절대적인 호응이 모든 어려움을 克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고 있는 業務역시 女子다운 치밀성 뿐 아니라 一般住宅의 消防診斷에 있어서는 男子들보다 월등하다는 評을 듣고 있다.

이는 女子들이기 때문에 主婦 또는 家庭婦들과 긴밀한 對話를 통해 그 要因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며 男子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부엌이나 內室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女子消防官의 경우는 이러한 女子만의 잇점 때문에 때로는 同僚인 男子消防官들에게 未安스러울 때도 없지 않다. “당신들은 女子들만도 못하오?” 지금까지 발견해 내지 못한 문제점들이 女子들에 의해 나타나면 으레껏 上士로부터 꾸지람을 듣는것은 男子들이기 때문이다.

義勇消防隊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是正 懲罰에 그치고 말지만 格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消防官署에 通報하는데 이러한 경우 上士로부터 많은 視線이 담당소방관에게 쏠릴때 정말 未安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個的인

일일 뿐 業務에 熱中하다 보면 모든 私事로움은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消防官의 어여쁜 制服차림, 義勇消防隊員의 단정한 「유니·폼」, 여기에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한 奉仕는 은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김 송자 의용소방 대장

인 호응과 聲援으로 깎차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女子 義勇消防隊員의 경우, 隊員 모두가 家庭主婦들로 構成되어 있어 家庭살림 하랴, 새마을事業하랴, 消防 訓練 및 啓蒙을 하랴, 모두가 1人 3役 4役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男便의 理解가 아무리 많다해도 子息을 가진 主婦가 집안을 비우고 外部活動에 專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이 바로 그것이다.

女子消防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職業이라고 보다는 使命感에 앞선 이들의 活動을 輕視하거나 嫉視하는 一部 國民의 자세를 對할 때는 정말 눈물이 왁낙 쏟아 날뿐 아니라 不安과 焦燥 속에서 일손마저 놓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무념이다.

어느 집에 화재요인이 되는 시정 사항을 지적해 주면 “내집 내가 保護하고 우리 모두가 高等教育을 받아 당신들보다 더욱 잘 하고 있다”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一部 國民의 그릇된 認識.

自身の 財產과 生命을 火魔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신들에게 왜 그렇게 불만스러운 표정들을 하는지 理解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잘 보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 이후라도 火災가 發生하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족할이만큼 이들의 活動을 激勵해 주고 또 이러한 업포(?)를 듣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하루의 日課 끝에 오는 피로조차 잊게 할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업무에 만족감과 업무의 重且大性을 더욱 實感케 한다고 한다.

지난 몇년 간 우리 나라 火災發生率은 비교적 減少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불에 대한 認識度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들 女子들은 풀이한다.

이들의 주장대로 지난날에 비해 오늘의 국민은 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防空·消防의 날」 行事동 정

부의 적극적인 啓蒙活動에 主因이 되겠지만 이들 女子들의 눈부신 活動에서도 그 要因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체 火災統計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住宅火災의 경우이고 보면 住宅火災만을 취급하고 있는 이들 女子들의 活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새마을 사업의 役軍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完全히 提高되지 못한 불에 대한 警覺心. 불의 고마움만 알았지 무서움을 體驗하지 못한 그릇된 일부 국민의 자세는 상시 우리 주위에서 무서운 火災의 發生을 豫告해 주고 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자세에서 불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철저한 정신무장만이 내가 살고 國家가 사는 福祉國家 建設의 捷徑임을 이들은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 × ×

우리는 결코 이들의 活動을 傲視해서는 안되며 또 이들의 活動을 外面해 버려서도 안되겠다. 지난날 우리는 消防業務는 男子들의 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연약한 女子의 몸으로 이를 奔然히 打破하고 일어난 이들에게는 뚜렷한 意志가 깃들여있다.

어머니消防隊는 오직 奉仕와 犧牲精神으로, 女子消防官은 祖國의 役軍으로 來日을 期約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뜨거운 激勵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일을 결코 輕視하거나 傲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적극적인 協助로서 이를 支援해 주고 激勵하여 주어야만 되겠다.

여기 어머니消防隊와 女子消防隊의 發足 以後의 活動實績를 엮어 본다.

어머니義勇消防隊는 지난 1972年 11月 서울市 9個區에서 1,474名의 活動力있는 主婦들로 構成, 各區別로 消防隊를 조직하였고 女子消防官은 이듬해인 1973年 10月 1日 우리나라 消防史上 처음으로 22名의 女子를 公開試驗과 嚴格한 訓練을 거쳐 消防官으로 採用하므로써 지금까지

의 國家의 鎮壓消防 一邊倒 體制에서 豫防消防을 겸한 二元的인 複合體制로 一大變革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女子들이 豫防消防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全國民으로 하여금 火災豫防업무에 참여케 하는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住宅火災가 전체 火災件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住宅에서 取扱上 注意가 要하는 油類·「가스」·電氣 등의 燃燒器具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많은 發火原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法定 消防檢査對象에서 제외되어 官의 檢査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요인제거를 소홀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女子消防官과 義勇消防隊의 誕生 및 이들의 活動은 우리에게 더욱 所望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一般住宅 특히 高地帶 및 密集地帶를 중점적으로 하여 벌이는 이들의 活動狀況을 概括하여 보면 ① 燃料·火器取扱 및 燃燒器具의 安全管理方法 ② 消防施設의 使用 및 그 방법 ③ 火災時 待避方法, ④ 새로운·火源·消火器具·消火施設의 研究·開發에 따른 火災豫防策의 善導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어머니義勇消防隊는 그동안 8個地域 894棟 1,218家戶, 「아파트」5個地域 485棟 9,700家戶, 木造·連立共同住宅 및 危險建築物 등 120世帶를 방문하고 불조심 傳單 22,700부를 配布하는 등 火災豫防 啓蒙活動을 전개하였다.

이밖에 修女院·美粧院·女學校 및 寄宿舍와 「아파트」등 男子의 出入이 困難한 특수한 場所와 孤兒院·養老院·國民學校 등에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들은 ① 「아파트」5個地域 485棟 ②

住宅 9,700世帶 등에 대한 防火診斷을 통해 油類取扱 350件, 電氣取扱 280件, 「가스」取扱 315件, 아궁이·난로 1,250件 등에 대한 不安要素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女子의 몸이지만 男子가 받는 엄격한 消防訓練을 거쳐 一線消防署에 配置, 實務에 臨하고 있는 女子消防官은 어머니消防隊보다는 늦게 誕生되었지만 어머니消防隊 및 어린이消防隊의 活動을 指導啓蒙하고 住宅防火診斷을 하는 등 活潑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특히 火災現場에 出動하여 직접 人命救助作業을 展開하기도 하였는바 그동안의 活動實績을 보면(73年 12月 30日 現在) 어머니消防隊 61個地域中 9個地域에 3회에 걸쳐 737名, 各급 국민학교에 조직된 어린이消防隊 총 210個校中 25個校 1,800名에게 3회에 걸쳐 啓蒙活動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지도계몽은 주로 어머니消防隊에게는 ① 人命 應急措置法 ② 불조심啓蒙要領 ③ 각종 座談會를 갖고 각종 火災豫防指導를 벌이고 어린이消防隊에게는 ① 消火器機 使用法, ② 119 申告要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每月 15日 「防空·消防의 날」을 기해 高地帶 및 「아파트」板子地帶 등의 주민들과 座談會를 갖는 한편 ① 興行場의 幕間放送 ② 市場·商街·百貨店의 「엠프」放送 ③ 火災脆弱地區의 街頭放送 등 불조심 啓蒙放送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벌인 街頭放送 실적으로는 興行場 118個所에 590個, 市場·商街·百貨店 239個所에 717回, 기타 街頭放送 12個地域에 144회를 벌였으며 특히 이들이 各種 火災時 直接 出動 救助作業을 벌인 回數는 124回, 이중 현장에서 窒息死 2名, 火傷者 4名을 應急 措置하였다.

(資料·서울市消防本部 提供)